

스마트폰 호출하면 자율차가 고객 위치로

SKT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

스마트폰으로 카셰어링(차량공유) 차량을 호출하면 고객 위치로 차가 스스로 오는 기술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대, 쏘카, SWM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배곧생명공원 인근 도로 2.3km 구간에서 카셰어링용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국토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기술 개발' 실증 과제 성과를 선보이는 행사다.

행사에는 SK텔레콤, 시흥시, 쏘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집한 일반인 100명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시연에는 SK텔레콤이 서울대·연세대 등과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 총 5대가 쓰였다. 현대차 'G80', '아이오닉', 기아차 'K5', '레이', '니로'를 개조한



체험단이 자율주행으로 운행 중인 SK텔레콤-연세대 차량(레이) 안에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차량이다. 체험단은 스마트폰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차를 호출했다. 주변 자율주행차는 호출 즉시 체험단 위치를 파악

하고, 수 분 내 도착했다. SK텔레콤은 향후 5G를 접목해 자율주행, 차량 호출, 자율 주차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kni@metroseoul.co.kr

연동형비례대표 필요



기지수첩

정연우 (산업부)

에드워드 로이스는 저서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에서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의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각종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선거를 치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선거방식은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평등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미국의 양당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 구조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한 채 재분배 개혁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987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25.5%의 정당득표율로 48%의 의석을 얻은 반면,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을 차지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도 3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져 협치와 다당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권력은 평범한 시민 한 명의 정치력에서 나온다. 시민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정치권력의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다수에게 권력이 분배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ywj964@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 국내 넘어 해외서 주목

현대모비스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주니어 공학교실'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소재 Durfee 공립 초등학교에서 '주니어 공학교실' 시범수업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현대모비스가 국내에서 2005년부터 이공계 인재 육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습

형 과학수업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 10여명의 연구원들이 강사로 나서 재능기부

했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현대모비스가 국내에서 2005년부터 이공계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생 대상 실습형 과학수업이다. 국내에서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사로 나섰으며, 200여개 초등학교에서 3만여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 Durfee 공립초등학교에서 현대모비스의 주니어 공학교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모비스

며, 200여개 초등학교에서 3만여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10월 1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손풍에 뒤편에 가듯이 손조로운 하루이다. 60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2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84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귀인이 될 것이다.
- 소** 49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6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73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85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탓임을 명심하라.
- 호랑이** 50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뱀띠의 도움으로 획득. 62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74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이다. 86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 토끼** 51년생 친척의 방문으로 근심거리가 생긴다. 63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칠 것이 없다. 7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87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 말** 52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64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7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라. 88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 뱀** 5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65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 77년생 용서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다. 89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으니 의지가 중요.

- 말** 54년생 물 건너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66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7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90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서 도와준다.
- 양** 55년생 자신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67년생 두드러져 열릴 문이 면 힘껏 두드려라. 79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9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 원숭이** 5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68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80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2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다.
- 닭** 57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팔 것 같으나 자중할 때이다. 69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81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 챙겨라. 93년생 당장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와 타협.
- 개** 58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70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82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94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 돼지** 59년생 우물을 발견했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라. 71년생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밤이니 곧 태양이 뜬다. 83년생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라. 95년생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1		8					5
		4	2		9	1		
4								7
	2							1
7		6				5		3
	7		1		4			6
	8			2				3
		5	7		8	2		

		2	4		5			1
1					9		7	
5	4			3				8
	9				7			6
2		7		5		3		4
	5		6					7
	1				8			2 3
		4		2				7
6			5		4			

스도쿠 정답

1	6	2	8	5	4	9	7	3
4	9	7	3	1	6	8	5	2
5	8	3	1	9	2	4	6	7
8	1	4	6	7	3	5	2	9
2	5	9	7	8	1	6	4	3
3	7	6	5	2	4	1	8	9
6	8	1	9	3	7	5	2	4
7	4	5	2	6	8	3	9	1
9	3	8	4	1	6	7	5	2
2	6	7	3	4	9	8	1	5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회의 四季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면 짙은 표정의 남자가 말을 꺼냈다. 50대 중반의 남자는 정년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명예퇴직으로 은행을 나왔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잘 지냈다. 평생 직장생활만 하다 자유로운 몸이 되니 그렇게 좋더라. 무작정 노는 게 싫증나면서 제2의 인생을 찾아보려 고민 중인데 뜻밖의 문제에 가로막혔다. 그건 무얼 하면 좋을지 무얼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인지 고민하면서 평생 보낸 셈이죠." 남자는 은행 중에 금(金)이 많은 사주를 갖고 있다. 성격은 고집이 세고 가끔은 날카로운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일을 할 때는 칼 같이 업무처리를 하며 좋은 성과를 올린다. 남보다 우월한 문장성도 갖고 있다. 머리가 좋고 지식을 배우는데 흥미가 많은 사람이다.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쪽으로 진출했어도 좋을 운세였다. 은행 생활은 그에게 고객을 대하려면 자기의 고집을 세울 수도 없었고 매일 돈을 맞추는 것도 탐탁치 않았다. 그렇지만 생계의 짐도가 가벼워진 그는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사주가 어떤지 무얼 하면 잘 어울리는지 알고 싶어요." 일리 있는 말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족부양이라는 짐에 평생을 시달린다. 힘들기는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이나 어쩔 수 없기도 하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짐이 가벼워진 다음에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문장성이 특출한 남자의 사주로 보아서 업계 후배들을 위한 강연도 잘 어울린다. 평생 축적한 전문성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다. 남 앞에 나서서 돋보이는 걸 좋아하니 강연은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평소 즐겼던 책읽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글쓰기로 새 삶을 펼치는 것도 좋다. 삶의 무게에서 살짝 벗어난 퇴직 한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은 최고의 화두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79호